

다단계판매 학기내검토를 보고

다단계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얼마전 87학번 선배에게서 들은 안 사실이다. 때문에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주위의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이일에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한 개인에게 하면 하는 것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무관심도 그냥 지나가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일대일 개인끼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거래 및 유통은 어두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수많은 선을 타고 피라미드 식으로 내려오는 거래와 이용계산방식. 그것도 그 모든 과정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인간관계

소중한 것 지킬줄만 안다면...

가 단지 판매의 한 경로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다단계판매방식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법학도에게 물어 보고 싶다. 불법·위법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개정은 어떠한지. 경제·경영학도에게 물어 보고 싶다. 과연 이러한 방식의 판매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런 방식의 판매를 행할 때 피라미드 하부로 갈수록 그들에 끼여 들어오는 이익은 과연 어떤지. 과연 바람직한 판매방식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리고 사회와 인간을 생각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어찌하여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그만큼 절실했을지 모르겠다. 취업의 경쟁하는 선배들이 많이 판매될 수 밖에 없었던 사실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더러 논리적으로 이 다단계 판매방식(M.L.M)의 문제점 또는 잘못됨을 논하라 하면 난 솔직히, 뭐라고 고집을 수 없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연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260-3491-2

나태한 지성 깨우칠 때

우리는 우리 대학인들을 칭하여 지성인이라 자주 일컫는다. '지성인'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고 학구적인 단어이지만, 지성인이란 단어의 자체를 살피고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 번 되돌아 볼 때 것이다. 먼저 '지성'은 '지'와 '성'이 합하여 '알다'란 뜻을 나타낸다. 즉, 무엇이든 마음 속에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성'은 매개명사로 어느 한 부류에 속하는 것을 특정짓는 문법적 범주를 뜻한다. 따라서 지성인이란 높은 지식을 소유함과 동시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부푼꿈을 가슴에 가득 안고 채 몸, 낭만, 자유의 세계라 일컫는 대학에 들어왔다. 철학을 논하며 대학이라는 자신감에 차있던 대학문화를 동경하며, 꿈을 키워 현재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의 현실은 어떠한가? 주체성을 잃고 남들이 하는 대로 대세를 좇아 물결타고 돌고 돌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회의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소비와 향락을 추구하게 되고, 대학 본연의 목적인 진리탐구를 점점 우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양지에 가려진 음지 알게돼

주목기에 최후판이 난사되어 주된들이 대피하고 추운 날씨에 대피시키고, 수도가 끊겨버려 굶주려야하는 상황. 부모가 돈 벌러 나간사이 아이들을 맡겨 놓았던 놀이방이 부실하고 이들의 장난감과 동화책, 그림책이 흩어지고 파손되고 카메라, 악기등 재산을 매각도가 강행해 가는듯. 바로 93년 2월16일 30년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선다는 신한국... 청량1동의 일이다. 지난 2월16일 청량1동에서 일

경주 대학운영 개편 필요

지난 11일 경주 교수총회에서 부총장 선임 거부 결의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종종 이 문제에 관한 기사를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본인은 경주로 복원한 지 보름도 되지않아 이 문제를 심각성을 인식 할 수 있었다. 도서관을 가보면 천정에 비가센 흔적이 널려있고 난방기가 가동되고 있는 열람실은 두 곳 밖에 없다. 본교에는 모든 열람실에 난방기가 가동되고 있고 한 열람실에 여러개의 난방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다. 운동시설에도 문제가 있다. 본교에서는 여러 곳에 철봉과 평행봉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데, 이곳에는 멀리 떨어진 대운동장 끝쪽에 규격에도 맞지 않는 조잡한 철봉들이 모두 녹슨 채로 부상의 위험을 가지고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식사문제다. 지난 방학중에 경주에 내려와 학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당은 도서관 식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았고, 그곳에서의 식사조차 본교와 비교하면 값도 비싸고 질도 형편없이 떨어졌다. 도대체 왜 우리는 도서관, 운동시설, 식사등의 모든 것이 이렇게 미흡한가? 이는 바로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하려해도 멀리있는 '본교의 승인'을 거쳐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곳의 발전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발전의 기본 바탕은 학생들의 열정과 이를 위한 학교측의 최소한의 배려에 있는데, 타 학교는 말할것도 없고 본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있는 기본적인 학생복지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그 원인의 뿌리가 후식이다. 서울과 경주의 수직적인 운영체제에 있는 것이라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대학을 건설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운영체제를 개편할것을 요청한다. 김현석 <한외대 한외예과>



Post 사조에 비판의식 가져야

지난번에 '메이러'란 '생활의 발견'이란 글을 관심있게 읽었다. 생활에 대하여 진보와 보수, 개혁을 추구하는 것, 또는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다. 사실, 요즘은 읽을만한 신간서도 없고, 글까지 볼것도 읽을 여유도 없다. "느낌을 종종 갖는다. 게다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책의 해'까지 만들어 사회를 변모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흐트러져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확실히 20세기 말의 세계는 새로운 사조가 꿈틀거리며 발미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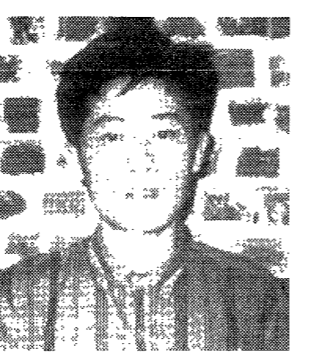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이미 탈근대적인 사조에 대한 비판의식을 상실해 버린 느낌인가를 걱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지배논리에 얽매어 살아 그르치는 세태를 견뎌서는 안될 것이다. POST-1(탈)현상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 POST-1의 명의를 이루려는 차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구사하려는 후기산업사회의 순응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에 맞서야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진보적인 삶에서 보수적인 사상을 잃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의 선행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이근형 <사회대 행정과-분사 모니터>

동문칼럼

다시 봄이 왔다. 문화강의를 들던 학생시절이 그리워진다. 강의실 한 귀퉁이에 쳐박혀 남모르게 가슴을 조이곤 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 가고 싶어진다. 깊이도 모를 절망만을 안겨주던 글쓰기, 높은 밑줄이 잔뜩 쳐진 시집을 읽던 밤들,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던 밤들, 아아, 슬픔에 빠져 헤엄쳐다니던 밤들이 그리웠다. 시간이 나의 존재를 구원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시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이, 허영없이 그리워진다. 동대 국문과에 입학하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던 것이다. 내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학교 분위기가 창작에 뜻을 둔 사람에게 풀없이 자국을 주었고, 계속 분방을 유도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열정 하나만으로 문학을 하겠다고 뛰어났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잘못고 방황하던 나에게 국문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 동인들의

시 쓰는 후배가 드물다

말은 꽃잎을 혼자서 보는 마음일 것이다. 가끔 혼자 버려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단에 처음 나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문단이란 곳에 나와 몇 해동안 활동이 잘 하다가 보니 그 외의 다른 직업은 줄어든다는 커닝, 갈수록 더 사무चे 온다.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을 배웅하면, 동대 출신 문인이 드물다는 것을 어느 자리에서나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연은 교수님들의 방방한 무관심을 지적하는 사람이 드물다. 궁극적인 선배님들은 수도 없이 많은 반면, 지면을 통해서 시 쓰는 후배를 만난 적은 없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 모춘판사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새로 문단에 나온 시인들의 동단작품을 받아 책으로 묶은 적이 있었는데, 한 해동안, 신문이나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시인들의 데뷔작품을 받아 재수록하는 것이었는데, 어이없게도 동국대학을 거친 시인이 단 한 명뿐이었다. 타대학 출신은 많



김미리 <인문대 철학과>

매체 비평

1백원을 모금 하더라도 부당하게 팔릴수 있는 물건들의 합계는 투쟁에 대해서 한번쯤 떠올려보고 고민해 보는 그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밝은 양자 그 이전에 가려져 있는 음지의 최후까지도 찾아야 하고, 여기에서 임태되는 모순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성 <인문대 경제과>

북 NPT 탈퇴보도

세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대화의 통로가 막혀온 남북관계는 김영삼대통령이 이인모 노인의 무조건 북핵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는 듯했다. 여기에 과거 인기몰이를 중심으로 한 경쟁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했던 대북정책이 한완상 통일장관을 중심으로 한 온건세력의 입지가 넓혀지면서 많은 국면에서 선풍 기대감을 갖게 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3월12일에 발표한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더욱이 회와 대화의 통로가 보였던 남북관계는 다시 급랭하는 변화를 맞게됐다. '비, 안보리회부 강경대응'(중앙, 3월13일), '핵야욕 드러나 총력적' 긴급성 틀을 행동우려'(한국 3월13일), '중지 김일성 탈북행위 우려'(조선, 3월13일)에서 보듯 각 신문들도 이 사건을 1면 머릿기사에 올리

민족 공영 모색하는 언론기대

인식의 확산과 미국의 언론보도는 아무런 반론이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몇몇 신문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 문제가 핵확산금지 조약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는 보도에 할 수 있다. 진지와 관련해서는 민족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물론 균형 잡힌 판단의 근거를 뒷받침해 주려 노력하는 언론의 자세를 기대해 본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신문분과>

목석골

- 축하합니다
-처우형 귀경을 축하해요. 그리고 동락, 응시, 정일이 반갑다. 그리고는 MIRA인 되자, 재가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찾아주세요.
-MRA모두가
-탈 새내기 유공심(산공93)은 발달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홍실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 승희
-소영이의 지난 19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영이를 사랑하는 선배들
-행정학과 정호화형의 93년도 유학을 삼가 축하드립니다.
-행정 92일동
-행정학과 93학번 새내기 승도, 철우, 동호, 인우 포스트 비판 연구회의 회원이 되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있게 잘해 나가시구요.
-포스트비판 연구회 171 일동
-3월 23일 우리과에서 가장 달콤한 새봄의 21번째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꼭 할 말이 없다면...
-92학번 친구가
-24일은 내생일입니다. 자축합니다.
-문과대 학생회 선진부장
-3월 22일 건물이 재안이의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해요.
-만화일

알립니다

- 동국대학교 문학패 연합(간)이 서서히 그 본체를 동학의 대지위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삼월말 단주주체 연석회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동문(간) 주체가 각 단위 문학일꾼들에게
-경영(야)체육대회를 28일 개최합니다. 모여라.
-92 이부초
-동문회(大東-광주) 26일 5시 볼

온방골

- 축하합니다
-3월 23일 우리과에서 가장 달콤한 새봄의 21번째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꼭 할 말이 없다면...
-92학번 친구가
-24일은 내생일입니다. 자축합니다.
-문과대 학생회 선진부장
-3월 22일 건물이 재안이의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해요.
-만화일

축하합니다

- 축하합니다
-3월 23일 우리과에서 가장 달콤한 새봄의 21번째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꼭 할 말이 없다면...
-92학번 친구가
-24일은 내생일입니다. 자축합니다.
-문과대 학생회 선진부장
-3월 22일 건물이 재안이의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해요.
-만화일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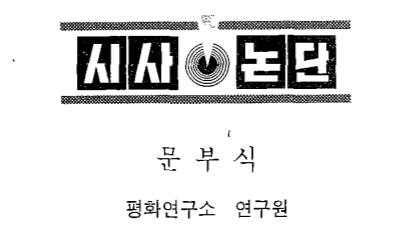
- 축하합니다
-3월 23일 우리과에서 가장 달콤한 새봄의 21번째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꼭 할 말이 없다면...
-92학번 친구가
-24일은 내생일입니다. 자축합니다.
-문과대 학생회 선진부장
-3월 22일 건물이 재안이의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해요.
-만화일

부자는 당해도 삼년 간다는 말이 있던가? 소련방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 이후 가속화된 전후 냉전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미·소 냉전의 한 축을 형성해 왔던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국가적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국가적 지위의 향상에 비추어 특히 정치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쇠퇴해 버린 것인가? 세계는 미·소 양극의 대결 구조로 말미암은 전쟁과 긴장의 오랜 사슬을 벗고 다원주의와 상호존적 평화공존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한마디로 아직은 '아니다'이다. 성급히 말해지는 이른바 '탈냉전'은 아직 하나의 추세로 지적되고 있을 뿐 그것이 전후 냉전의 성격이나 형식과 다른 또 하나의 냉전구조로 귀결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누가 전쟁을 '늘이'는가?
한반도는 주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북아 냉전의 화약고다. 그리고 여기 이 화약고 한 쪽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는 미국이다. 불행히도 미국이 이 화약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이곳의 무기는 한반도 비워져 본 적이 없을뿐 아니라 갈수록 첨단무기와 가공할 핵무기로 채워져 왔다. 명목은 한가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군사력 균

인 군사훈련장이었던 것이다. 탈냉전의 국제적 추세도 한반도의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이미 군비지출에 있어 75년 이래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고, 남한당국의 주장대로 GNP에 있어 북한이 남한의 10분의 1인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남한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한 북한의 군사적 모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자신의 '군사적 최대주의'를 포기할 적이 없다. 탈냉전의 한반도 작용을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전시접수국'이

가 성실하게 이행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와 미래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구실로 남북대화의 진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지난해 김정 중반되었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의 재개를 통보하고 이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연 팀스피리트훈련은 미국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합리적인 수단인가? 내용적으로도 모순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정반대다. 12년의 동원병력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첨단 전자기기는 물론 핵장착폭격기와 전진적 수송능력을 지닌 항공모함 인디펜던트호를 등장시킨 팀스피리트훈련은 핵사찰을 강제할 다양한 선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일까. 끊임없는 선제공격의 위협은 핵개발의 포기가 아니라 핵개발의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과적으로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는 북한으로 하여금 '준전시체제'를 선포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핵산정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인하여 남북관계는 전연으로도 경색돼 있고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 부식
평화연구소 연구원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화대안 모색해야

T·S 훈련과 남북관계

형만이 아니라 나아가 북한에 대해 무제한의 군비경쟁을 강요해 북한의 경제사회적 파탄과 정치적 항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한쪽이 바다에 무릎을 꿇거나 드러누워야 시합이 끝날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이 '군사적 최대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전후 냉전구조에서는 대소봉쇄의 효율성을 위해, 그리고 '탈냉전'의 경향성 아래서는 지역관리의 능력증진을 위해 미국은 주한 미군사력을 중심으로 76년부터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다.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이 그것이고, PACEX (89년부터 시작)과 불리는 대평양 군사연습이 그것이다. 미국에 있어 한반도는 텍사스주보다 훈련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는 가장 이상적

원형' (WHNS)을 한미간에 체결하고, 최초의 비용으로 최대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면서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액의 증대를 요구하고, 미군산인 무기로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군사력증강을 통한 적나라한 국가이기주의의 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미국의 군사력증강정책의 극복없이 누가 과연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핵사찰과 남북합의서, 그리고 전망
앞으로의 남북간의 대화와 그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은 91년말 제5차 남북회담 회담장에서 체결된 남북간의 기본합의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일방적 군사력증강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축 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팀스피리트훈련도 끝났다. 어쩌면 그것은 다시 재개되어서는 안될 위험한 불장난인지도 모른다. 군사적 신뢰조치를 먼저 취함으로써 위기에 몰린 북한을 안심시키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인 사찰의 방법을 찾아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핵전의 참화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미국의 의회 제정이 걸리고 팀스피리트훈련에 의해 중단된 남북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백발의 한 노인인 대한 귀환초지가 일회적 제스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대화의 진방이 개개되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아니냐를 묻거나 전방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책임 없는 일이기도 하다. 제2의 걸프전을 막기 위해, 민족의 공멸을 막기 위해 남북한 당국과 전국민적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최근 대학가에 다단계판매방식(M.L.M. Multi Level Marketing)이 침투해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본교도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월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이 보장되지만 정상적인 수치계산으로는 결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이 다단계 판매방식은 주로 3.4학년들, 복학생들 사이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이 판매방식에 유혹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다. 그리고 편찮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있으니 같이 하자고 권유한다. 3일만 시간을 내달라면서 자칭 교육담당자로 불리는 'Help'자가 3일동안 같은 내용을 교육하는데 설득형태가 아닌 강요의 태도를 보인다. 교육받은 속소에서는 교육받은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진실한 삶이 애기들과 자신의 사업결의가 애기되고 또한 교육받은 사람의 의문점에 대한 질문과 완벽하 만족의 논리를 갖춘 답변들속에서 트로피 이루어진 후 M.L.M.을 시작할 여부에 대해 묻고 인할 의사를 밝히던 재교육에 들어간다. 살펴본 것 이외에 더욱 문제되고 있는 것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판매

학내침투—다단계 판매방식

인간관계 파먹는 상술까지... 피해 확산 방지 위한 홍보 요구돼

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에서는 피라미드 판매방식에 의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2십만명정도가 '허황된 꿈을 찾는 사람들'로 현재 집계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인 시각으로 판매방식의 문제점 몇가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범람을 교묘히 피해가지만 단지 기간이상의 형태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행위이다. 둘째로, 수치적으로 계산한 하면 알 수 있듯이 결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로, 생산과 소비를 결합기 때문에 상품유통과정 자체를 파괴시키는 상거래 위반행위이다. 넷째로, 유행되고 있는 물질자체가 일부제품이어서 결국은 일본으로 돈이 유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

하는 불신구조를 만들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마저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본교의 경우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현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영조(문과과 학생회장, 사학4)군은 "이 다단계 판매방식은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과과 학생들을 조사한 명단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학생회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일은 지금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피해자의 충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라는 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자칭 'Help'라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범대 국교과의 경우, "졸업선배중 3.4명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동기들한테 전화를 해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처음 이 다단계 판매에 말려들었다고 합니

다. 주로 3.4학년들이 많고요, 1.2학년의 경우 'Help'가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직을 앞둔 선배님들이 이상한 유혹에 넘어가버리는 것이 더욱 안타까울 뿐이예요."라고 김모(국교4)군은 밝혔다. 학교측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탓인지 대책마련에 부심이다. 최순열(학생처장, 국어교육)교수는 "단지 이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의 의식개선에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배급주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상은 개선되어야 하며 법률적인 규제방법도 마련할 것입니다. 학생자치기구를 통한 고발장구 개설도 계획중이며 단과대 교과과편로 이미 다단계판매로 피해본 학생들에 대한 파악을 지시한 상태입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면 자기비난에 대한 두려움, 자책감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에게 더이상의 피해가 가지

사설

실천적 대중사업 필요

각 대학마다 최근 학생회 사업의 주요기조로 '근거지 대중운동'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음은 본지 지난해(3월17일자) 사설에서도 밝혔듯이 모두 주저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대중사업은 각 학교마다 여러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허부단위로부터의 문제의식들을 모아버리는 '의견개선운동'을 주창하고 과단위들의 의견들을 모아 총학생회1년 사업기조의 토대로 삼고 있다. 또한 외대, 숙대 총학생회등도 서울대의 '의견개선운동'과 맥락을 같이한 '이동총학생회'의 운영을 통해 학우들의 통행이 잦은 도서관앞등에 의사개선장구를 마련하고 학우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기에 여념없다. 본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도 서울대의 '의견개선운동'의 적용을 검토한 사업운영책으로 준비중이며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출범식기간동안 도서관앞에 이동총학생회를 설치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등 대중들의 의식흐름을 잡아내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내 생활복지 개선에 관한 총학생회의 대중운동관점 이에 기초한 실천적 사업작품은 부채제 학생들에게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들어 학내주변물가가 최근 20%의 상승을 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뚜렷이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공약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바라지 않는 것은 없었으나 총학생회의 대중운동 관점의 사업기조가 잘못되고 있는 지금 대중을 위한 생활문화·학생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5대 총학생회가 선출될 당시 내세운 생활문화·학생복지 공약은 학교 주변 유흥업소들의 확대규제와 근래에 더욱 늘어나는 가라오케, 탁구페등에 대한 제한으로 올바른 대학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과 타대에 비해 높은 가격의 후문 주변 식당의 식대를 인허가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오겠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생활문화 공약은 총학생회 산하에 생활문화부를 신설해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학내 환경운동을 펼치고 학부위와 연계한 전통차 차리기 설치등의 논의가 진행되었었다. 여타 도서관 시설 개선등의 공약들은 이미 등록금 협상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치한다. 차치라도 지금은 거의 정지되어 있는 학내 생활문화운동 상태를 지켜보면 위 공약이행 요구가 지나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매년 제대로 정면하지 않아 '똥질' 등을 먹고 있는 자판기거리만이 아닌 상대인 자판기 정결수준, 그리고 회수되지 않고 방치된 재활용 접수기와 운영과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학내 곳곳에 놓여진 폐건전지 수거함들은 학생들에게 학생회에 대한 실망만 인가해주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최근 급격히 오른 학교주변물가를 동결시키고자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에게는 불매운동을 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에게 애의사항을 마련하는 등 학우를 중심으로 둔 대중사업'이라는 학생회 기조를 실현에 옮기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 우리 학생들은 본교 총학생회의 대중사업기조를 학우들에게 허상으로 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제 공약은 실천으로 옮기는 학생회, 학생복지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학생회로 학우·대중에게 자리에 건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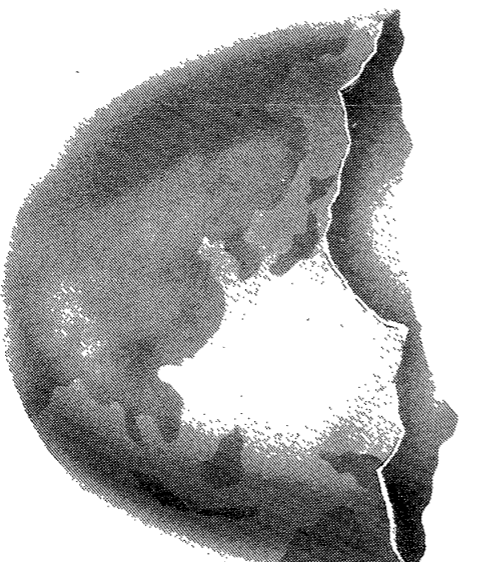
東國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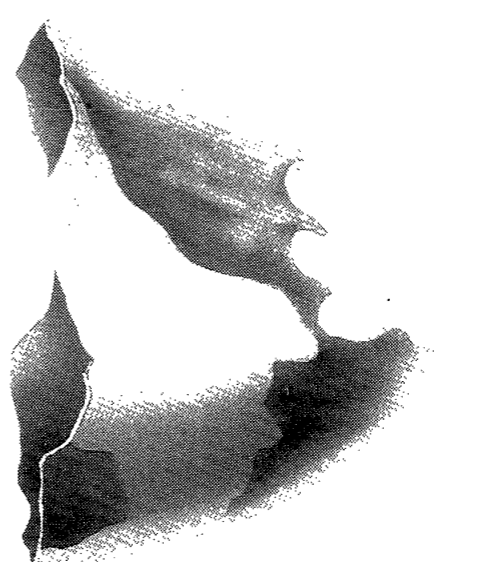
김상남
이번호(1119호)부터 동국만평 필자가 김상남(사범대 지교3)양으로 바뀔니다.

祝 입학축하합니다.

“어떠한 성취도 도전안에 있다.”



도전하지 못할 세계는 없습니다. 패기에 찬 젊음으로 무한한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젊음의 가치는 성취보다도 그것을 향한 도전에 있습니다. 목표자체가 성취라기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가 곧 삶의 성취인 것입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젊음 앞에는 목표보다 더 좋은 결과가 놓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젊음의 패기와 진취적인 열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그 도전적인 패기에 있습니다.
도전적인 패기를 지닌 젊음은 창조적인 열정에서 날라옵니다. 각자 자기소신과 목표를 지니고 최선을 다하는 도전의현장—종합건축자재에서 도로, 건설분야까지 미래의 꿈을 일구어 가는 금강·고려에는 바로 이런 젊음들이 일구어내는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금강·고려

▶ **철사금 강** ▶ **고려화학** ▶ **금강종합건설**

◇ 포스트맑스주의적 시민사회론의 한국적 신사회운동에 대한 비판

국가지배세력에 포섭될 가능성 많아

사회적 특수환경 고려된 재고찰 요구

80년대의 주요한 학문적 관심사가 자본주의 국가의 생성과 작동원리에 관한 국가론의 영역이었다면 시민사회론은 이러한 국가론의 퇴조와 더불어 등장하기 시작한 조류라고 할 수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화와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은 국가론의 퇴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시민사회론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시민사회론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민사회론은 포스트맑스주의적 맥락에서 도출되는 시민사회론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포스트맑스주의적 시민사회론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한국적 상황에 대한 적용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자)

된다. 즉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시민사회를 도외시한 국가중심의 변혁모델은 역사적으로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론자들처럼 시민사회에 대한 강조와 시민사회내의 변혁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급진적 개혁의 주체가 국가에서 시민사회로 이동했다는 주장과 국가를 통한 개혁에 대한 거부나 부정적인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장소이며 국가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변혁의 추구는 이제까지 사회변혁의 핵심이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다. 국가를 통한 변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유용성과 효율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역할을 가지는 계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계급간의 대립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공통성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론자들은 '시민'이라는 공통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시민사회에 내재하는 계급간의 균열구조를 간과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민으로서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기에 앞서 더 근본적으로 경제적 위치에 따른 계급적 이해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방향을 선택한다. 이러한 계급간의 이해와 충돌은 비단 경제의 영역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가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론자들은 계급간의 대립을 국가-시민사회간의 대립으로 교묘하고 있으며, 마치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과 개입을 근절하는 것이면 영성의 진리란 듯이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어, 연구전통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역이 되는 '신사회운동'은 반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인 전통적 사회운동과 구별되며 기술관료적 후계산업사회의 지배구조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시민사회론과 신사회운동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랜 기간의 군사독재적 억압에 시달려온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실천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강권적으로 분할하고 조직해온 주체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군부, 그리고 의회에 의해 장악된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였다. 국가의 강권력 속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성이란 존재할 수 없었으며, 국가에 대한 복종과 순응이 체질화된 사이버 시민사회의 결사체를 (대표적인 예로 한국노총을 들 수 있다)만 국가의 강권력을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준국가기관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사회 각 층위의 민주화 운동은 그 본래의 목적인 민주주의의 쟁취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협력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한국도 서구와 같이 공적영역으로서의 국가와 분리되는 시민사회영역이 뚜렷한 모습

시민사회론의 제기

시민사회론이 제시한 새로운 변혁의 유형은 '신사회운동(the New Social Movement)'이라는 말속에 압축적으로 표현된다. 이는 기존의 지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배집단에 의한 발전의 통제권을 전향하면서 한 걸음 더 한 계급의 요구를 넘어서는 운동을 가리킨다. 새로운 노동자계급(교직원, 고인급의 전문기술직, 엔지니어,



○ 시민사회운동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을 취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는 정치적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하였다. 시민사회의 폭발로 비유되는 87년 6월항쟁과 그 뒤를 잇는 일련의 과정은 시민사회에서의 정치운동은 국가로 대표되는 정치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다. 이는 진노열, 전대열, 전교조 등 시민사회의 결사체들이 하나같이 정치적 요구를 내걸면서 정치사회의 변혁을 추구해온 것만을 보여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제한적이나마 지배분류가 추진하는 개혁 프로그램 등은 시민사회의 결사체들의 정치운동의 동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특히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기존 사회운동의 이념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힘을 얻으며 등장한 것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대표되는 온건 개혁주의적 시민운동의 기조이다. 경제정의의 시민운동은 기존의 제도적 결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치, 경제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과 개혁의 중심 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추구하는 점에서 '신민'이라 지칭되는 사회적 행위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즉 경제정의의 사회운동은 부르조아

와 프롤레타리아가 '시민'으로서 똑같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지만 이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실 직시한 시민론

포스트맑스주의적 시민사회론과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제 사회운동의 발흥은 역으로 노동자계급 중심의 변혁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자기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성의 내용은 변화된 상황에 적절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맑은 논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맑은 논리를 끌어들이고 있다. 즉 스탈린주의를 가지고 포스트맑스주의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양자모두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대한 비판이론과 동시에 사회의 현실문제의 해결과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사회이론의 등장을 기대해본다. 시민사회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박범수

<고려대 대학원 정의과 석사과정>

시민사회론의 가장 큰 특징은 '반국가주의적 관점'과 '계급투쟁론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반국가주의적 관점'은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과 제약을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라고 표현하는 데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개인들의 삶의 영역이자 사적 영역인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



양심의 세월, 43년 "통일전에는 눈 못감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76), 전인민군 중군사 이인모. 이인모 노인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 43년만의 낯설은 귀향길에서 말문을 걸지 못했다. 그의 앞엔 선 부인 김순임씨(66), 외동딸 이현옥씨(44) 등 마중 나온 가족들을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바라보다 이현옥씨의 얼굴을 매만지며 슬한 고향의 세월을 참고 견뎠던 울음을 터뜨렸다.

"오늘도 고운 햇살은 세상에 비추지만 시민이 한몸 녹여줄 빛은 어디에도 없구나. 아이아 백발의 청춘이 서럽지만 후회없이 걸어온 양심의 세월이라. 더러은 너희에게 내 양심 줄수 없어 당당히 가리다 조국해방 한 길로"(노래 '양심의 세월'의 가사)

미국과 남한의 텀스퍼트훈련과 북한의 국제전력기구(IAEA)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로 국제적인 긴장과 이른바 '준전쟁상태'라는 들뜬 언론의 허위보도에 싸늘한 냉기가 감돌던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한은 세계사의 비극, 한국전쟁으로 인해 맺어진 인간적 비극을 치유하려는, 그리고 앞으로 분단민족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인도적 행위예술'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7천만 거리의 염원과 함께 해온 까닭에 결코 위대한 '인간승리'라 불려 지나치지 않을 한 인간의 웅혼한 신념과 한결같은 열의가 있었다.

그는 입원 기간내내 병실주변을 지키고 있던 기간원들에게 요구를 받거나 대화를 나누게 되면 긴장을 늦추지 않고 평소 정확하지 못했던 말도 또렷 또렷하게 했다.

그러나 옛동지 장기수들을 만나게 되면 해맑은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하면서 '담담하게 가십시오. 바닷물처럼 지금까지 견뎠듯이 통일될 때까지 견디거나 가세요'하면, "그리겠습니다"면서 마음속 울림을 조절하면서 흥분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 북에서 보내온 가족의 비디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그가 입수경 방북비디오를 보면서는 그렇게 하얗게 웃었다. 한

몸 청춘을 조국의 자주화, 통일을 위해 불살랐던 지난날이 떠올라서였을까. 그래서 17일 오후 입수경씨의 병원방문시 입원기간중 제일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었다.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던 그는 옆에서 "할아버지, 입수경양이예요" 하자 눈물을 치켜올려 눈을 크게 뜨고 "반갑습니다"면서 기뻐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 노인의 병실에서 간병차원봉사를 했던 정진화씨(26)는 "오늘은 가시는구나. 실감이 난다. 7천만은 겨레가 원했고 노력해 오던 결실이다. 할아버지 병세가 나이져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쁘다. 저는 여기에서야 할아버지의 고통이 민족의 고통이고 정미 이 민족이 분단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서 오뎀없는 잠이든 눈물을 터뜨렸다.

동료 장기수 윤희보씨(67)는 "이건 소위 문민정부의 첫 걸음이다. 아직 두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거나 가족이 살아있는 장기수가 많이 남아있다. 수 십명의 장기수가 차가운 긴박에서 고생하고 있다. 사면복면도 다시 진실되게 이루어 지고 모든 현실

장벽이 허물어 지는날 문민정부는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해석하고, "우리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일만나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느냐에서 평가를 낸다"는 이 노인 평소 지론을 밝혔다.

이후 환송대회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대회에서 박군(부산대 차의예과, 2년)은 '존경하는 이인모 선생님'라는 편지를 낭독했다.

"...살아 생전에 복면장을 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 '통일전에는 눈 못감아'라고... 젊은 감방에서도 병원에서도 선생님의 부름은 두 눈이 저희들의 가슴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통일될 때까지 오래오래 몸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988호는 30여명 민주단체 회원과 학생들의 철저한 경비 속에 조용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뒷날 병원 로비에서는 기다리던 청년학생 2백여명이 승강기에서 이 노인의 휠체어가 나오자 남북한 단 일기를 흔들면서 '할아버지 통일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외쳤다. 이 노인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손을 흔들며 답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손을 흔들면서 어느새 젖어든 눈을 닦고 있었다.

<전대기원 공동기자단>

동국로

교수들은 뒷집만지고 있다. 이날 교수-학생 한마당에 참여한 교수는 불교대 교수 20여명명 불과 8명명이었다. 또 행사에 나온 교수들조차 능동적

동국 중흥

지난17일 오후 만해광장에서 불교대 불교대 학생회 출범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범식의 가장 큰 기조로 동국중흥-제단혁신을 위한 학내 민주대원합 구축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8,19일 양일간 만해광장에서 있었던 불교대 학생회 출범식도 이러한 기조에서 교수-학생 한마당이 준비됐다.

교수, 직원, 학생이 함께 동국중흥을 이루자는 뜻에는 별 무리 없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우리속담에 명석 짚아놓으면 잘라낸 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실질적 행사가 마련되면

또 불교대 학생회 선전부장 김지영(선2)양은 "교수님들이 출범식에 재정적 도움을 주시는것은 고맙지만, 직접나오셔서 학우들과 함께 할수있었던 좋았을 것 같아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한편 불교대 한 교수는 "우리가 나기도 마땅히 참가할 만한 행사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나오려고만 하니 우리가 어떻게 나가자나? 행사의 참여공간 부채를 말한다.

이렇듯 학생회 집행부의 자기위주의 행사 결정이 오히려 교수들의 참여의 장을 오히려 좁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

동국중흥이라는 커다란 대의앞에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학내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야만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교수들은 교수들 나름대로 서로에 대한 불신감으로 하나가 되지못한다면 동국중흥은 과연 누구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인가.

(이석종 기자)

뜻깊은 만남, 새로운 출발 - 크라운이 함께합니다.

개강파티, 동문모임, 신입생 환영회-출발이 새로운 계절입니다. 만남이 더욱 뜻깊은 나날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크라운맥주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꿈은 크게, 축배는 높이-매년 이맘때면 언제나 그랬듯, 싱그러운 만남속에 크라운이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크라운맥주

© 1993 King Features Syndicate, Inc.
크라운맥주가 여러분의 새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좌담〉 다단계 판매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다단계 ...’ 법적 규제 불완전 — 피해 속출

△사회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본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이번 좌담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아 더 이상의 피해를 내지말자는 데 역할을 두고 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래와 법적인 절차를 짚어 보죠.

△황창규: 제조업자와 소비자 직결되는 관점을 학문적으로 볼 때 다단계란 용어로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는 Indirect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조합식, 합동식 다단계 인적판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의 계식 다단계 인적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재일교인으로 다단계판매 발명자를 직접 만났는데 그 사람 밑에 의하면 이 방식은 60년대에 미국, 일본에서 특허를 받아 외국에 돌아와 양말을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나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박영길: 명칭적인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는 방문판매 및 피라미트방식을 합쳐 다단계 판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적상금금지조항입니다.

△배형: 각 단계별로 속해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명칭을 알고 싶는데요.

△박영길: 판매업자, 판매자, 조직개설자 이름만 정해져 있고 각 단계별 직위에 대한 용어규정은 특별히 없는 실정입니다.

△배형: 그러면, 맨 처음 단계인 조직개설자를 1단계로 본다면 모든 단계별 사람들이 구매자가 되는 것입니까?

△박영길: 1단계는, 2단계는 다 조직개설자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단계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니 자연히 소비자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배형: 기업을 갖고 중간단계, 마지막 단계가 있을텐데요. 그러면 마지막단계는 자체소비를 하는 결과로 되는거고요. 이렇게 되면 엄밀히 말해서 마지막단계는 없게 되는 거지요.

△황창규: 기업체에서는 4단계에서 끝납니다. 예나하면, 다이아몬드 놀리던 마진율이 커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배형: 기업에서 형식으로 보면 다단계판매원들은 소비자일텐데 그럼 1.2.3단계와 4단계를 구분하는 용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단계가 전부 기업의 정식사원도 아닌 이상 말이죠.

△황창규: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계식이라고 보면 적당합니다. 학문적이 아닌 이상 특정한 분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박영길: 잠깐 여기서 일본법을 보면은 방문판매, 무연연계방식의 금지법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조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배형: 글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무연연계방’은 가능한데 자칫 잘못 보면 다단계 판매중 4단계 판매방식

△사회자: 차수련(본사주간·경상대 경영학과 교수)

△참석자: 황창규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배형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길 (법과대 법학과 교수) 조지현 (철학과 학생회장)

△좌담일시: 3월19일 오후 3시

△좌담장소: 본사 주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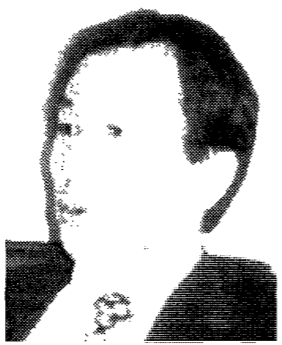
차 수련 교수



황 창 규 교수



배 형 교수



박 영 길 교수



조 지 현 양

은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법상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좋습니다. 다단계 판매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모든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정한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까?

△황창규: 우선 유명브랜드상품은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그런 부정판 방법을 쓸 일도 없고, 마진을 크게 벌 이유도 없으니까요. 첫째로, 제조업자, 상표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상품을 사용합니다. 둘째로, ‘잔치 비지떡’을 역이용한 상품을 씁니다. 가령 스퀘알렌, 비타비, 보약등의 상품을 주류, 식품 등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때문에 처음시도된 양말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박영길: 문서상으로 보면 제일먼저 우리나라에서 이 판매방식을 시행 한 회사는 1천9백88년 미국회사 ‘아메이코리아’이고 그다음 전자요, 건 강식품회사 등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아메이코리아는 성공해 눈물까지 흘 계획이었으며 성공후 나머지 여부를 하부조직에 맡겼습니다. 이런 점도 성공의 요인이죠.

△사회자: 그렇다면, 왜 이 판매방식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황창규: 현재 이 일어나는 일들은 처음부터 아예 성공할 수 없는 것인데 순진한 학생들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여기에 말

려든 학생들은 사행심과 일확천금의 기대로 남긴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렇습니다. 다단계 판매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모든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정한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까?

△황창규: 우선 유명브랜드상품은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그런 부정판 방법을 쓸 일도 없고, 마진을 크게 벌 이유도 없으니까요. 첫째로, 제조업자, 상표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상품을 사용합니다. 둘째로, ‘잔치 비지떡’을 역이용한 상품을 씁니다. 가령 스퀘알렌, 비타비, 보약등의 상품을 주류, 식품 등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때문에 처음시도된 양말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 학생의 입장으로서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보면 ‘incentive’에 의한 판매방식, 즉, 다른 ‘incentive’ 판매방식과는 달리 파는 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incentive payment’를 만들때, 예를 들어 백시 운전사의 경우 하루일당한계 7만원일 경우 이익이 되고 못되면 자신

의 돈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기업은 그냥 앉아서 돈만 벌게되죠.

△사회자: 학생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지현: 친분관계를 주로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3일간만 시간을 내라 그러면 너희한테 아주 유용한 기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너희도 나하고 이렇게 친한데라는 말로 거절조차 할 수 없게 한다고 해요. 다른 경우에는 달리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인해 인간관계도 파괴됩니다. 집에서의 가족관계까지 파괴될 수도 있구요.

△사회자: 학생의 입장에서 볼때 이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특수한 판매 방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배형: 우선, 학생입장을 떠나서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보면 ‘incentive’에 의한 판매방식, 즉, 다른 ‘incentive’ 판매방식과는 달리 파는 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incentive payment’를 만들때, 예를 들어 백시 운전사의 경우 하루일당한계 7만원일 경우 이익이 되고 못되면 자신

모히 법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본정도와 노동력을 감안하여 남들이 다 망해도 나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행심 등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수준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에는 투기행위여 지나지 않습니다.

△황창규: 간단하게 한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2단계 5인조로 6백25개, 4인조로 2백56개를 팔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신이 이 정도의 양을 팔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여기서 그럼 문제점을 서너가지로 요약해 보죠.

△박영길: 하나는, 상거래 질서와 관행을 파괴하게 됩니다. 물건구입은 소비행위인데 다단계판매의 경우 소비와 판매를 겸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대상이 주부나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 나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드는 거지요. 또한 외국기업이 국내시장 침투방법중의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불공정거래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사회자: 다시말해서 재화가 생산, 유통되기 위해서는 즉 두단계의 도매, 소매기능이 필요합니다. 도매, 소매의 기능을 한 기능이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단계판매방식은 처음부터 당연히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박영길: 결국 사회를 혼란시키게 됩니다. 대학사회에서도 계약파괴의 고지외무, 광고시 청약처리기간, 14일이 지켜진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배형: 설게로 회사에서는 14일의 시일기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고지외무는 중요하지 않으니깐요.

학생 보호의 구체적 대안 필요

건전한 소비생활 지향이 관건 인맥 의존과 사행심 버려야

기이다 얼굴 아는 선배도 있고 보증금 넣고, 3일간 훈련을 받고 나와서 직접 해보니 불가능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법에서조차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자: 학생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지현: 친분관계를 주로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3일간만 시간을 내라 그러면 너희한테 아주 유용한 기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너희도 나하고 이렇게 친한데라는 말로 거절조차 할 수 없게 한다고 해요.

△배형: 그렇습니다. 왜 이 판매방식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황창규: 현재 이 일어나는 일들은 처음부터 아예 성공할 수 없는 것인데 순진한 학생들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여기에 말

△사회자: 법에서는 고지외무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박영길: 법에서는 세부적으로 9개 항목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으니 이런 항목은 다른 형태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형: 법에서는 그렇지만 일부러 회사에서 연기에 버리면 일반 시민들은 법이 당할 수 밖에요. 법적인 문제이지만 단계별 사람들의 규정이 확실치 않습니다. 법문제를 추상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단계의 사람들의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법규정전에 한가지 어려운 점을 지적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의 경우 도매기능과 중간매매기능을 겸하고 있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부담이 확실치 않아 전담과 관행상이 법보다 먼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방식도 중간매매 모든 구입과 판매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의 여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배형: 세단계 법으로써 판매원을 규정해야 하고 또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인을 법으로 규제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소비자들과 기업간의 관계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영길: 관계기능을 법으로 규정하는 어려움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행 미국법에서도 불공정거래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항목은 각 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연쇄판매, 방문판매를 금지시키고 있고, 일본의 경우 아가 말

쓰드렸듯이 ‘방문판매’, ‘무연연계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형: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본래 계약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선다면 어느 학생이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5명만 데리고 오면 성공한다는 말에 대부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라해 야 될 문제라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길: 법이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라는 얘긴데요. 법에서는 허위광고, 허위계약서 위반에 관한 처벌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시작하기전에 조금만 주위를 기

△사회자: 법규정전에 한가지 어려운 점을 지적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의 경우 도매기능과 중간매매기능을 겸하고 있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부담이 확실치 않아 전담과 관행상이 법보다 먼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방식도 중간매매 모든 구입과 판매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의 여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다단계 판매’가 교내에 침투함에 일정도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를 통해 한 교내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생각이다. 이번 글이 모든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좌담을 지휘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의 경우 도매기능과 중간매매기능을 겸하고 있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부담이 확실치 않아 전담과 관행상이 법보다 먼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방식도 중간매매 모든 구입과 판매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의 여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배형: 세단계 법으로써 판매원을 규정해야 하고 또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인을 법으로 규제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소비자들과 기업간의 관계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영길: 관계기능을 법으로 규정하는 어려움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행 미국법에서도 불공정거래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항목은 각 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연쇄판매, 방문판매를 금지시키고 있고, 일본의 경우 아가 말

△황창규: 평균 42%마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음뿐더러, 바로 뒷단계는 안아도 맨 뒷단계는 몰라도, 점조적으로 되어 있어 소매파악이 어렵습니다.

△박영길: ‘불공정거래’에서 일본 판례상 무효로 판결이 납니다. 법 개정문제는 나중이고, 당장 등록금을 날린 것이 문제이지요.

△황창규: 학생들을 보호하는 과정의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불공정거래법을 보면 고발, 심사의 과정이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도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배제시킬 수 없어 현재 달려들어난 사람들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업시 학생들에게 들은 바로는 5%정도가 그런 유혹을 받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자: 결국은 건전한 소비생활을 지향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군요. 일확천금을 벌어야겠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부터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오간 얘기들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다 말씀들이 피해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정리, 김판식 기>

학교채권증서 교부안내

동국대학교 발행 학교채권증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아 래

- 대상자: 학교채권매입 신입생(대학 및 대학원)
- 교부장소: (서울캠퍼스) 소속대학 교학과 및 대학원 교학부 (경주캠퍼스) 기획홍보과
- 지침물: 학교채권매입 영수증, 도장, 신분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기획조정실 기획과, 경주캠퍼스 기획홍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기획조정실 기획과(전화: 260-3019, 3020)
기획홍보과 (전화: 770-2019)

기획조정실장

수강신청 최종확인 안내

동국대학교 발행 학교채권증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아 래

- 확인기간: '93 3 29(월) 1일간
- 확인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및 학과
- 유의사항: 1)수강신청 과목의 임의변경(취소, 추가)은 절대 불가함 2)전산처리, 오류, 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등의 부득이한 경우만 정정가능함 3)정정사항은 수강정정자료(양식)에 기재하여 해당교학과에 제출함

교무처장

이사장 큰스님 초청 개강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동국의 모든 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충만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모두 여의로우시옵길 불보살님께 축원드립니다.

본 정각원에서는 개강을 맞이하여 전통국인을 대상으로 이사장 큰스님 초청 개강대법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아 래

- 일시: 불기2537(1993)년 3월24일(수요일) 오후4시
- 법사: 이사장 오 녹 원 스님

정각원장

'94학군사관 후보생모집 R.O.T.C

-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4년제 대학 2학년 ('71.1.1~'76.3.1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3.3.1~4.20(학군단) 구비서류: -지원서 및 서약서 각1부 -1학년 성적 증명서 1부 -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천연색 사진(4x5cm) 5매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선발: 대학성적(입학50%, 1학년성적20%), 체력검사(25%), 면접(5%), 신체검사, 신원조회
- 합격자발표: '93.12.3
- 특전: -무시험선발 -장교중 최단기 복무(2년3개월) -전공학과 및 개인희망 고려 병과분류/보직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 학군출신장교 우대선발 및 처우 -장교 임관후 해외유학 기회부여 -국내외 석사, 박사학위 취득시 정책부서 근무

학군단장

'93 대학장학생 모집 (학군, 학군사관)

- 모집인원: 1학년(000명)
- 지원자격: 4년제대학-1학년('71.1.1~'77.1.1출생자) 3년제대학-2학년('70.1.1~'76.1.1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기간: '93.3.1~4.20(학군단본부) 나.구비서류

1차(지원서)	2차(신체검사)
1)지원서(사진첨부)및 서약서 각1부 2)복무연장 또는 장기 복무지원서 3)대학입학 및 성적증명	1)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1부 2)재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3)사진(4x5cm) 3매

- 선발절차: 가.1차: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나.2차:신체검사, 신원조회
- 합격자발표: '93.8.10
- 특전: 가.학군후보생 지원시 『가』점 부여, 선발시 우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나.대학출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다.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라.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육군본부

여성과 여성의 재인식

글 쓰는 차례

1. 여성억압의 현상적 실태
- 법률권 보장수준을 중심으로
2. 여성 스스로 보는 진정한 여성상
3. 남성이 보는 이시대의 여성상
4. 올바른 성의 실제 확립을 위하여

두번째 여성 스스로 보는 진정한 여성상

TV화면이 커진다. 그 속에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쏟아져 나온다. 각각각색의 행동과 말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간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날인하고 미인이라는 연약하게 보이는 여성들이다. 풍동하고 역적스럽게 행동을 하는 여성도 TV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단지 그들은 우리를 웃기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간혹 거리가 예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하는 여성도 보이지만 그들은 온연중요 하나 눈요기거리 또는 늘 보

는 역할에 지루할 법도 한 인상을 자극하는 그러다가 제풀에 지치고 마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별종'으로밖에 치부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여자'로 길러지는 모순된 사회

대중매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다. 여성들은 어릴 적부터, 아니 태어나

기도 전부터 여성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행동에 많은 차별적인 규정을 받게 되고 왜곡된 통념에 시달리기도 한다. 어릴 적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드러나지 않는, 때로는 노골적인 행동에, 학교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差異)에 당연하게 여겨진 '차별(差別)'이라는 관념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주입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을 자신의 의식속에 무조건 몰아넣고 다시 이를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입시 공부에 매달려 있다가 대학에 들어온 여성들은 많은 자유와

급뒀던 고3시절과는 달리 여성(女性)으로 대접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남대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에서 여대생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 '여자가' 혹은 '여자다워야지'라는 말이 들려오고, 남대생과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석연찮게 들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존의 사회, 대중매체를 비롯해서 미세한 장(場)들에도 강력하게 살포되어 있는 여성다움, 여자다움에 대해 짚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는 사회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무용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있는 소위 바람직하다고 일컬어지는 여성

건강한 자아실현으로 통념극복의 노력 필요

성의 진정한 이해는 삶의 주체성에서

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남성이 권위를 갖게 되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용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성으로서의 운명이나 굴자를 중얼대면서 머물러 있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의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다움'의 의미를 넘어서서 새로운 여성다움, 여성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진정한 여성상을 창출해 내야 한다.

진정한 자아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여성은(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젊은 시절에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사회에 나가든지, 대학교에 다니든지, 미팅을 하고

충고하기도 한다. 치장하는 여성의 모습은 자신의 만족이라는 변명적 자위속에 남자에게 보여지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여성은 자기주장이 약해야 하고, 따듯함과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남성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대학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은 드러나지 않게 자신에게 주어질 '꽃'을 목록화 수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주입 받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인식이 완벽하게 굳어지는 순간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할 여유도 없이 여성들은 그렇게 그렇게 자꾸 바람직한 여성이 되어 간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바람직한 여성상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흔히 생물학적 차이를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가 따른 어느 정도의 차별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생물학적 차이가 남성과 여성간의 역할을 고정시킬 만한 충분한



현 사회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연약한, 육체적 아름다움으로 표상되고 있다. 여성 스스로의 인식의 각성이 절실하다.

은 기존의 사회에서 부추기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남자의 어깨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나약한 여성상도 아니고, 날인한 각성미를 가꾸기 위해 살배기를 죽을 각오로 하면서 타인들에게 보여짐만을 베푸는 대상화된 여성상 또한 아니

다. 이는 기존의 사회가 제시하는 수동적인 여성다움과는 그 내용이 엄격하게 다른 것이다. 남성을

을 위해 규정되고 의존성을 키우게 되는 나약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가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자신에게 부여된 성에 맹목적이고도 운명적으로 지배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포함된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여성다움의 의미속에서 진정한 여성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진정한 여성상

바로, 기존의 사회가 지닌 여성다움에 대한 통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독선적인 태도는 지양하여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밝은 여성의 모습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여성상이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정한 인간상이라는 것이다.

홍은정 <이화여대 강사>

월간 **진정**



언젠가 한 남학생이 몹시 화난 표정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다. 사연은 이러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후 군대를 다녀오고 삼년을 제수한 끝에 소위 높은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그런데 자신의 두세번째 동생쯤되는 여학생들이 아무개씨라고 써서 붙여 부르는 바람에 영 비위가 뒤틀리고 속이 상한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높은 신입생이란 자각지식에 의기소침해 있는데, 어린 여학생들마저 맞먹으려드니(?) 화가 치민다는 것이었다. 참다 못해 이의 시정을 위해 교수를 찾았노란다.

이우러 자유분방한 대학사, 화려한 나이 많은 신입생이 호칭에서부터라도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럴 학생은 어떤 호칭을 원하느냐고 묻자 정작 대답은 하지 못했다. 이런 경

호칭론 소사

우 아버지, 오빠 혹은 형은 적당하지 않다. 선배님보다는 못하지만 써서 붙는 호칭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설득시켜 그의 격앙된 감정을 한결 누그러뜨렸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호칭문제에 대하여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호칭에 얽은, 교수님이란 호칭에 대한 어느 국어학자의 글이 생각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를 교사님이라고 하지 않듯, 대학교의 교수도 교수님이라고 해서 안된다는 요지였다. 교사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듯이 교수님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었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보니 '교수님'이란 호칭은 대학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사무적이고 의례적으로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 따라서 직업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호칭이다. 이에 반해 '선생님'은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제자와 스승사이에서 통용되는 느낌이다. '교수님'이 권위적이고 위압적이거나 '선생님'은 다정하고 친근감을 더해준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신분이 교수이고 보면 의사님, 화가님, 농부님 처럼 직업을 호칭으로 삼지 않는 관례를 보더라도 교수님의 호칭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듯하다. 더구나 정년퇴직 등으로 교수직을 떠났을 때는 더욱 부르기가

불교의 정치철학

이 책에서 제시된 정치철학은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시작으로 도덕적 인간으로의 의식개혁을 요구한다. 즉 '5계'라는 실천원리를 통해 통치자의 바람직한 인간형을 완성하고 사

대한 완전한 이해와 완성된 인간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역자 정승익은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원제는 '불교의 정치사상'이다. 팔리경전에 나타난

불교의 정치사상을 통해 불교의 정치사상과 그 전후의 인도 정치사상을 잘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불교의 정치철학을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나'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나

불교의 정치철학

이 책은 제1차 정치철학은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시작으로 도덕적 인간으로의 의식개혁을 요구한다. 즉 '5계'라는 실천원리를 통해 통치자의 바람직한 인간형을 완성하고 사

대한 완전한 이해와 완성된 인간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역자 정승익은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원제는 '불교의 정치사상'이다. 팔리경전에 나타난

불교의 정치사상을 통해 불교의 정치사상과 그 전후의 인도 정치사상을 잘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불교의 정치철학을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나'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나

불교의 정치철학

이 책은 제1차 정치철학은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시작으로 도덕적 인간으로의 의식개혁을 요구한다. 즉 '5계'라는 실천원리를 통해 통치자의 바람직한 인간형을 완성하고 사

대한 완전한 이해와 완성된 인간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역자 정승익은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원제는 '불교의 정치사상'이다. 팔리경전에 나타난

불교의 정치사상을 통해 불교의 정치사상과 그 전후의 인도 정치사상을 잘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불교의 정치철학을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나'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나

불교의 정치철학

이 책은 제1차 정치철학은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시작으로 도덕적 인간으로의 의식개혁을 요구한다. 즉 '5계'라는 실천원리를 통해 통치자의 바람직한 인간형을 완성하고 사

대한 완전한 이해와 완성된 인간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역자 정승익은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원제는 '불교의 정치사상'이다. 팔리경전에 나타난

불교의 정치사상을 통해 불교의 정치사상과 그 전후의 인도 정치사상을 잘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불교의 정치철학을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나'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나

20살 여성을 위한 에피앙 광고페이지



자기주장이 강한 신세대 Inner Wear, 바너스 에피앙

학생 22세 동문미술학과 3년

Simple & Soft감각의 고품격 언더웨어, 바너스 에피앙

감각세대 20살, 바로 이 감각 신세대인 18세~23세 여성에 잘 맞도록 색다른 감각과 Simple함, 그리고 편안함을 그대로 입을 수 있는 바너스 에피앙. 그래서 에피앙은 20살 여성을 위해 만든 화운태이션 랜제리입니다.

감각, 디자인, 소재에서 개성이 더욱 돋보이는 20살 여성의 랜제리, 바너스 에피앙

아웃웨어의 다양화와 함께 개성화 및 감성화에 발맞추어 20살 여성의 욕구(need)를 충족한 바너스 에피앙은 「감각과 디자인」 그리고 「소재」에 이르기까지 한층 다양해진 패션경향에 주안점을 둔 패션리더 랜제리입니다.

자기만의 멋을 추구할 줄 아는 탐구하는 아름다움, 바너스 에피앙

아름다움은 추구할수록 더욱 돋보이듯이, 탐구하는 아름다움은 그 깊이가 더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20살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바너스 에피앙, 에피앙은 Inner wear를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표현할 줄 아는 신세대를 위한 화운태이션, 랜제리입니다.



TV 비행

여자의 방... 그물 속의 방



이 시대 여성의 갖가지 유행이 이 드라마에선 너무 과장되게 부각되어 있어 극적인 재미 이상은 주지 않고 있다.

어쩌면 세상은 많이 변했어도 모른다. 어쨌거나 이 시대의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을 때까지, 눈 내리길고 손가락이나 민지작거리고 있지는 않는다. 세상이 변했고, 사랑도 변했고, 여자가 서있는 자리도 달라졌다.

그러하여 TV드라마도 이제는 변했다. 사랑을 영원한 주제로 하는 드라마 산업은 이러한 가치변화에 따라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한 여자와 두 남자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에 나오는 더 이상 시청자를 붙들 수 없다. 그래서 TV드라마는 그것의 본질에 따라 세련되어졌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변했다. 멜로드라마는 어차피 사건을 축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소재 변화 또한 당연하다. 일과 사랑의 갈등에서부터 여자의 과거에 대한 용인과 거부, 거미줄같이 얽힌 관계설정과 불륜, 아니면 아예 코카콜라처럼 톡 쏘는 신세대의 사랑법에 이르기까지. - '남편의 여자', '사랑을 위하여', '질투' 등을 기억하라 -

MBC 수목 드라마 '여자의 방' 또한 이러한 멜로드라마의 세대교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세 여자를 만나게 된다. 먼저 한영진(배종옥 분)이 있다. 아파트를 세낸 장본인이기도 한 그녀는 대기업의 디자이너이며 당찬 독신주의자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사회의 고정관념인 남녀차별에 맞서고

자 하는, 그야말로 독소라니는 여자, 현대여성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녀는 회사 동료인 황보현을 좋아하지만 직장 후배에게 그의 사랑을 뱉고 사 진작가 장건영에게 눈을 돌린다. 그녀에게는 결국 자신의 일과 그 일을

그의 매력에 이끌리게 된다. 그녀는 착하고 순정적인 성격과 여자다운 매력을 지닌 전형적인 멜로물 속의 여성이며, 여기에 변역이라는 색다른 직업과 배역을 맡은 고현정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인물이다.

결국 이완기이다. 한 여자와 두 남자가 만들어내는 삼각관계라는 진부한 설정, 그리고 '여자의 방'은 여기에 하나의 교묘한 장치로 덧붙여 시청자들을 끌어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장치는 바로 여성의 '자기의 방'이다. 현실에 대한 진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이러한 기위 맞춤형의 드라마는 현실을 과장 내지 축소 애곡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의 방'은 이같은 기본설정 외에도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세 인물의 개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나친 과장이나 강조는 현실감각을 잃고 있으며,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적으로 줄거리가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극중인물의 성격이 앞뒤가 맞거나, 무리하게 새로운 인물이 끼어들기도 한다. 또 극중 인물의 성격이 출연 연기자의 이미지에 따라 고정되어 버리는 등등.

결국 '여자의 방'은 또다시 복잡한 애정행각만을 부각시킨 채 여성의 본질은 여전히 과잉되게 못하고 있다.

현실과 여성 본질 호도하는 멜로드라마

통해 만나는 두 남자가 있다. 즉 일 통해 매개로 한 전형적인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윤희수(고현정 분), 최수예(김혜선 분)는 오렌 남자였지만 이진우를 만나 재현과는 다른

30대의 수필가인 정선(이미숙 분)은 이기적이고 허영심 많은 이혼녀로 모순투성이의 성격이다. 그녀에게도 마찬가지로 두 남자가 양쪽에 놓여 있고, 자신의 일이 있으며, 자기 방식의 삶이 있다.

멜로드라마의 전형처럼 고정화된 삼각관계의 복잡계, '여자의 방'은 어쩌면 '그물 속의 방'인지도 모를 일이다.

박정아 <숙명여대 국문 93졸>

예비교사가 '동지'들에게 주는 글 공지와 사명감 지닌 교육주체로 서길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자연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개구리가 뛰어나고, 철따라 강할것 같았던 땅 속에서, 어느새 새로운 생명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이룩과 하늘을 향해 크게 가지개를 씹니다.

이러한 우주의 운행은 한치의 예의도 없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미혹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작은 유기체로 태어나 만물의 영장다운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 인간은 자연의 순리대로 조금씩 변화하여 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그러한 인간의 교육적 변화에 강한 애착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니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을 통해서만 더 높은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그 깨달은 사랑을 띠고 실천을 위한 단념 - 교육실습 - 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약간의 두려움과 흥분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

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연 교육이라는 것이 소수 몇몇 교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대답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제 자식을 낳지 않고 기르지 않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후속도사나 그 밖의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간접적으로라도 분명히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모두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교육을 해야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육의 주체적 방법을 배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지들이여!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양한 가치관의 엄청난 혼란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동생들, 후배들을 위해 뛰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한달여의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 한 해 복시다. 어둔 바다를 뒤흔들며 비추는 등대

"교육현실에 대한 개혁의 주체도 객체도 우리 자신임을 인지해야..."

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 자신 역시 그러한 교육을 받아온 세대들이니 그 개혁을 위한 여러면들을 같이 '동지'라 부릅니다. 이방의 교육현실을 똑같이 이기 사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부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은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무력하고 소심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힘으로, 혹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힘으로는 현재의 교육을 더 이상 개선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비록 사별인이고, 교직을 수감하는 학생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교사가 되지 않을 텐데, 괜한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사법대학원 혹은 교직과정 이수 자로써의 긍지와 사명을 잃어가고 있

와 같이 어둠 교육 현실속에 있는 사람들에 밝은 빛을 비추어 줍시다. 험난한 밤 바다를 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개혁의 주체는 우리이고 객체 또한 우리 자신입니다.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않은 교육실습을 교사가 될 사람이라면 보다 소중한 미래를 위한 경험의 밑거름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민간 교육의 동반자로서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생각하기를 합시다.

한 배를 탄 예비교사로서 우리 한 번 잘 해보자 하는 건전한 담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박운백 <사범대 교육 4>



강습회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강좌...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대안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한 강좌. 민간환경운동 등의 방황과 환경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4월12일부터 6월28일까지. 공추련 환경교육관. 735-7000

새로 나온 책

◇염서... 통일혁명당 사건 무기수 이면서 '강요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의 육종생화기록. 조용하고도 견고한 문장, 소박한 그림들이 현대인의 매마른 가슴을 되돌아보게 한다. (너른마당)



◇여대생을 위한 취업안내... 여대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전문직종 50여가지를 비롯한 각종 취업정보를 상세히 수록해 있다. 인기, 유명직종을 소개하고 면접에 대비한 준비사항도 첨부되어 취업을 앞둔 여대생에게 참신한 정보가 될 것이다. (새날 5천원)

공연 안내

◇돼지와 오트바이... 북촌창우극장 개관기념 작품으로 우리들의 과거와 꿈을 어떻게 극복하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평범하면서도 절실한 문제를 다룬다. 돼지는 오트바이를 타면 왜 즐거울까 라는 사회적 풍운 속에 슬픈처럼 살아온 인생의 편린을 생각해 보는 작품. 5월30일까지 북촌창우극장. 765-4282

신규·미등록 동아리 해마다 증가

동아리 선택에 신중한 지성 요구돼 기존 동아리와의 변별성 지녀야 등록 가능

신입생들이 대학에 발을 내딛고 어김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동아리활동이다.

현재 본교 동아리연합회 산하에는 서울캠퍼스 58개, 경주캠퍼스 48개의 비교적 많은 숫자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학술, 예술, 창작, 공연, 사회, 봉사, 체육, 교양, 연구부와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배속돼 있는 본교 동아리들은 각 동아리마다 자체적 조직과 특성을 전지하며 학생들의 학과외 활동유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렇듯 많은 숫자와 다양한 분야에 만족하지 않은 채 신규동아리는 매년 그 수를 더해가고 있다.

지나해 등록이 되지 않고 이름만 알려진 채 활동해 온 동아리로는 광고 동아리 '에드러쉬', 풍기타 노래모임 '물계 구름', 미학연구 동아리 '민중미학연구소'가 있다. 이들 새 동아리는 어느 동아리와 다름없이 인원과 조직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동아리 등록이 완료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간과 활동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또한 경주 캠퍼스에서는 출동하리인 '유로스', 메탈음악에 호모인인 '베탈에이저', '노나메지', '이이보리' 같은 축구팀이 현재 미등록 동아리로서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등록의 절차는 일단 등록신청을 하면 각 본과별로 심사를 거치고 1차 허가를 받은 후 1년동안의 시험적 활동기간을 갖는다. 이후 동아리연합회의 심사에서 심사위원과 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정식동아리 인준을 받게 된다.

동아리 등록 합격기준은 첫째, 기존 동아리의 성격 및 활동과의 변별성 여부, 둘째 학생들의 호응 및 참여도, 셋째 학내에서의 문화적, 예술적 기여도 등이다.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치고 평가기

준을 통과해서 지난 해 이후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로는 서울 캠퍼스 봉사 동아리 '손짓사랑회'를 비롯하여 경주의 노래패로서 '모디', '세벽을 여는 사람들' 등인 '정열'과 '유스호스텔'이 있다.

전체적으로 창작 예술부와 및 체육부와 동아리는 증가하고 인기를 더하는 추세에 반해, 학술·연구부와 동아리는 신입회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많은 등 전체의 일로로 걷고 있어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열기를 주춤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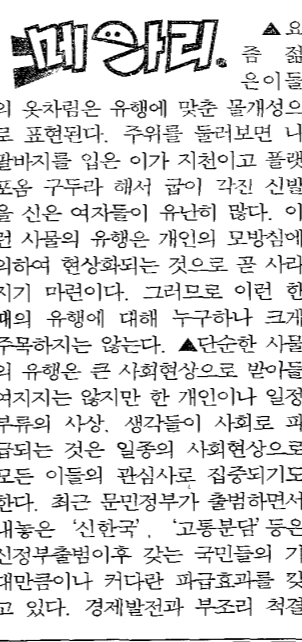
이런 현상에 대해 홍성훈(문화부장·전산공은)은 "예술·창작동아리가 늘어나면 그 창작 예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비평학술 모임도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어렵고 힘든 것을 싫어하는 요즘 대학생들의 의식이 여기서도 반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건전한 대학문화정도 조성을 위한 건강한 지성이 필요할 때다.

<조호애 기자>



최경인 (17)



의 신장부 과제들은 신유행어들로 치장돼 국민들에게 희망과 부흥 기대를 갖게한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초기의 패왕리였던 인사문제나 부정 비리속출이던 명부에게 실시했던 수 박결합기식 교외 공직자 재산공개등은 국민들의 낙관하는 마음들을 비판

것 아니겠는가하는 생각만이 들 뿐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고분분담'이라는 명목아래 노동자 임금통제를 말하는 문민정부. 그러나 이것 또한 형평성을 저버린 일이다. 손자, 손자명의로까지 재산을 위장분산해 재산공개시 재산내역을 축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감수하라는 말이다. 지난 22일에는 '신정제 1백일계획'이라는 기획을 통해 급진인하정책을 발표했다. 급진인하란 생산자의 투자의욕은 고취되겠지만 그 역효과로 물가인상이 당연하게 수반된다. 정말 앞뒤 안가리는 거품 유행 발표가 판을 치고 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국민들에게는 거품처럼 희망을 키우는 문민정부의 신대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낙관과 비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유행으로 끝날지도 모를 지금 국민들은 두렵다.

<水>

당신의 비전을 실현해드리는
럭키금성의 新制度

육성면담

"제 잠재능력을 키우려는 회사측의 노력 덕분에 이젠 회사의 대들보로 당당히 자랐습니다"

럭키금성상장 팀장 김기범

인사평가와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 그후 인제개발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통보받고, 제 희망이 의외로 많이 반영된 것은 물론 제 자신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잠재능력과 가능성이 높이 평가된 것을 보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제개발과 육성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주변 동료나 고객들의 의견까지 참고가 되었더군요.

저는 육성면담 후 제가 어떤 일류적인 것대에 의해 측정되지 않고 저만이 가진 개성과 장단점, 그리고 능력을 충분히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회사가 믿어주고 있다는 신뢰감에 더욱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 인제개발이란, 개인차를 인정한 위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한 후 스스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 업적과 자질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인정받은 직장에서라면 제 개인적인 비전이 회사의 비전과 조화롭게 일치되어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럭키금성은 믿음과 애정을 바탕으로 사원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